

도가마야마호쿠로쿠 (外鎌山北麓) 고분군

미와야마 산 (三輪山) 의 하세타니 골짜기 (初瀬谷) 를 사이에 두고 남쪽, 도리미야마 산 (鳥見山) 의 오오바라가와 강 (粟原川) 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표고 292.5m 의 산피가 도가마야마 산 (外鎌山) 이다. 이 북록부 일대가 긴테쓰아사쿠라 (近鉄朝倉) 역에 가까운 「아사쿠라단치 (朝倉団地)」로 개발되면서 1972년~75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산 능선에는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고 그 전체가 도가마야마 (外鎌山) 고분군으로 불린다. 류타니시군 (竜谷支群)에서 13기의 고분, 지온지시군 (慈恩寺支群)에서 10기의 고분, 옷사카시군 (忍坂支群)에서 8기의 고분이 각각 조사되었다.

이 중 옷사카 (忍坂) 5호분은 고분이라기보다 구획구 (区画溝) 에서 하지키 (土師器) 가 출토되어 방형대상묘 (方形台状墓) 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연대가 고분시대 중기 (5세기 전반대) 로 추정되므로 축조 시기로서는 가장 빠르다. 또 옷사카 8호분과 9호분은 매장시설이 전곽식석실 (塼槨式石室) 로 불리는 특수한 구조이고 특히 8호분은 육각형의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예다. 아스카시대 (7세기 중엽) 에 축조된 이른바 종말기고분이고 율령관인층이 그 피장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의 고분은 목관직장 (木棺直葬) 또는 횡혈식석실 (橫穴式石室) 을 매장시설로 하는 지름 10~20m 정도의 원분 (円墳) 이 대부분이고 그 축조연대는 고분시대 후기 (6세기대) 에 해당한다. 부장품은 한반도에 관계된 것으로 옷사카 3호분에서 쇠방울 (鐵鐸), 옷사카 4호분에서 백제계의 납작 바닥단지 (平底壺) 가 출토되었고 류타니 3·12호분, 옷사카 4호분 등에서 철제 마구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지온지 1호분은 지름 22m 의 원분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전방후원분의 가능성도 있는 고분으로 목관직장의 매장시설에서 유사한 예가 적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관통이 있는 유리구슬 150점, 활석제 (滑石製) 절구 모양 구슬 (白玉), 호박제 (琥珀製) 구슬이나 쇠화살촉·손칼 등에 더해 금제 반지 (金製指輪) 가 1쌍, 유리구슬 장식을 단 은제 중공 곱은옥 (銀製中空勾玉) 7점, 은제 공옥 (銀製空玉), 망울구슬 (蜻蛉玉) 등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 유물들도 한반도와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분 축조연대는 6세기 전반대로 생각된다.

국보 (国宝) 스다하치만 (隅田八幡) 신사 (神社) 의 인물화상경 (人物画像鏡) 의 명문에는 「오시사카노미야 (意柴沙加宮)」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고분군의 북쪽에 위치하는 하세타니에는 와키모토 (脇本) 유적이 있고 5세기 말경의 대형 건물이나 석축 (石垣)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유랴쿠텐노 (雄略天皇) 의 하쓰세아사쿠라노미야 (初瀬朝倉宮)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옷사카에는 팔각형분인 단노즈카 (段ノ塚) 고분이 있는데 조메텐노 (舒明天皇) 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변 유적과 관계를 맺으면서 고분군이 조영되었으며 그 역사적 의의는 중요하다. 옷사카 1·2·8·9호분은 아사쿠라단지 내에 이축·복원되고 있다.